



5면

"공무원연금 전복, 광주 통합 중단하라"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자치도교육청, '전북형 늘봄학교' 내달부터 운영

초1학년 방과후 프로그램 무상 제공

1학기 도내 75개 학교 대상 학생 성장·발달에 맞는 프로그램 매일 2시간 제공

233개교 초등 전교생에 방과후 업무지원학교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서거석 교육감)은 3월부터 '전북형 늘봄학교'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에 도모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된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 해소 등을 위해 1학기 75개교를 시작으로 2학기에는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233개교 초등 전교생에게 방과후, 돌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과후 업무지원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1학기에만 308개교(74.6%)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봄비에 우산 챙겨 길 나서는 시민들

연일 쌓인 봄비가 내리고 있는 21일 전주 덕진구 가련산로에서 시민들이 우산으로 비를 피하며 길을 지나고 있다.

1학기 늘봄학교 75개교 1학년 학생들은 성장·발달에 맞는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초1 학교적응 지원 및 놀이중심의 예·체능, 사회·정서 등)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받는다. 또한 14개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에서는 233개교의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전교생에게 미래역량, 진로탐색, 체육, 문화·예술, 기초학습 등 양질의 늘봄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1학기에 학교의 규모나 인력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한 유형별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내실 있는 늘봄학교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 늘봄학교 운영으로 저출생,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전북의 모든 학생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새만금 국제공항 특화' 해답은 항공물류에 있다'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여객 중심 전략 한계 극복 특송물류·콜드체인 등 항공물류 산업 기회 선점할"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이슈브리핑 '항공물류 기능 강화를 통한 새만금 국제공항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간했다. 여객 중심의 공항 발전전략 한계 극복을 위한 항공물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9년 개항을 앞두고 있어 현재 대한민국 15개 공항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연구진은 벨기에 리에주 공항처럼 특송물류, 국경 간 전자상거래 SeakAir 복합운송, 콜드체인 물류 등에 특화하여 관련 대기업을 유치하고 항공물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항공물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는 세계적인 여행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항공화물 물동량 증가로 물류를 통한 공항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과 의약품, 신선식품, 국경 간 전자상거래 제품 등이 급증해 항공물류산업은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했다.

2023년말 우리나라 전체 항공화물 물동량은 약 305만톤이며, 이 중 인천공항에서 약 360만톤(90.1%)이 처리되었다. 인천공항은 공항과 항공물류단지 인프라, 주당 약 3만4,000회의 다양한 고빈도 항공노선 경쟁력이 있다. 한중국제카페리와 인천공항을 연결

하는 SeakAir 복합운송 물동량은 대부분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화물로 2021년 기준 약 6만1,000톤을 처리했다. 카페리항로가 있는 인천항(10개 항로, 41.2%), 군산항(1개 항로, 30.8%), 평택항(6개 항로, 27.4%)에서 주로 처리되는데, 군산항은 단 1개 항로에서 전체 SeakAir 화물의 30.8%를 처리하여 향후 새만금 국제공항에 항공물류 기능이 강화된다면 서해 중부권 SeakAir 거점공항으로 발전할 기회가 열려 있다.

연구진은 새만금 국제공항의 여객 중심 공항 발전전략 한계를 인식해 개항과 동시에 조기 활성화를 준비해야 하며, 후발주자로서 차별화된 항공물류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새만금 국제공항의 여객 중심 공항 발전전략 한계를 인식해 개항과 동시에 조기 활성화를 준비해야 하며, 후발주자로서 차별화된 항공물류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새만금 국제공항의 여객 중심 공항 발전전략 한계를 인식해 개항과 동시에 조기 활성화를 준비해야 하며, 후발주자로서 차별화된 항공물류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

연구책임은 맡은 나정호 책임연구원은 "항공물류 기능 강화는 독자적인 특성과 물류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항공물류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항공물류 활성화 전략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의 개항을 준비하는 지금부터 항공물류 기능 강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 전국 최고 농촌 돌봄서비스 본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2024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전국 총 20개소 중 4개소가 신규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농업 활동을 통해 돌봄·교육·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함께 행복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데 있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에 선정되면 매년 평가를 거쳐 개소당 5년간 국비 3여억원을 지원 받게 되며, 사회적농업 활동 운영비, 시설비, 지역네트워크 구축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 공모 올해 전국 20곳 중 도내 4곳 신규 선정 자치도, 총 26개 농촌돌봄농장 운영... 4년 연속 최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농촌돌봄농장은 △익산시 불과로라의치유농장(장애인, 독거노인 등), △김제시 삼고파는 협동조합(청소년 발달장애인 등), △진안군 농업회사법인 자연맘(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이며, 농촌

주민생활돌봄공동체는 △진안군 백운통합돌봄 사회적협동조합(지역 어르신 등)이다. 이로써 전북특별자치도는 4년 연속 전국 최다 총 26개 농촌돌봄농장을 운영하는 광역자치체가 됐고, 이를 토대로 향후 주민주도의 농촌 사회서비스 제공이 한층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누구나 살고 싶은 활력 농촌 조성을 실천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며, "사회적 약자와 함께 나누는 행복한 농촌 마을 조성에 앞장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8월 17일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도시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국 규모의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를 3월착공 예정으로 내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소방본부, 23~26일 대보름 대비 특별경계근무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정월대보름 행사를 앞두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오는 23일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내 133개 모든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화재예방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는 등 초기 대응태세 확립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은 △화재취약대상 화재예방을 위한 24시간 감시체계 구축 △대형재난 대비 현장 대응태세 확립 △초기대응체계 강화 등이다.

정월대보름을 맞아 도내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화기를 취급하는 행사가 많은 102곳으로 대형재난 대비 현장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정월대보름 행사장에 소방 펌프차와 구급차 등 소방력을 전진 배치할 계획이다. /뉴스



전주매일 캠페인